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6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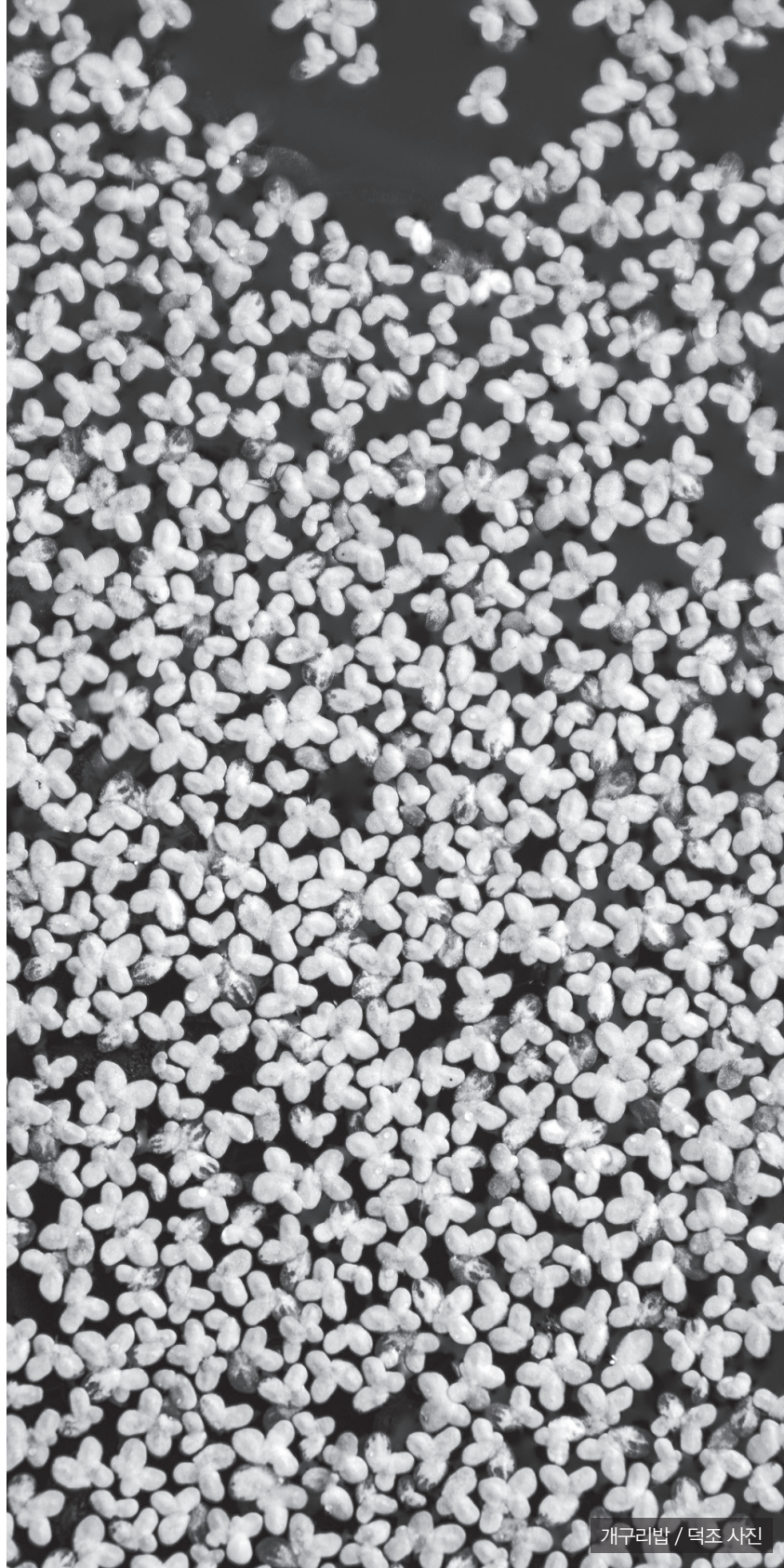
## 차례

1. 시절 인연  
나무들 이야기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주세요  
최초의 설법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무소의 뿔 1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공덕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선선한 부채질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자행동녀를 보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작은 기도

###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6월 1일 발행, 통권 328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나무들 이야기

후박나무에서 요 며칠 동안 꽃이 피었다가 졌다.

뜰에 가득 은은한 향기를 머금게 하는 아주 정결하고 기품이 있는 꽃이다. 연꽃처럼 낮에는 문을 열었다가 해가 기울면 문을 닫는다.

이곳으로 옮겨 올 때는 서너 자밖에 안 되던 묘목으로, 여름이면 시원스러운 잎을 펼쳐 보이기만 하더니 올해 처음 그중 두 그루에서 꽃을 피웠다.

이 산으로 나를 따라와 바람과 햇볕을 함께 나누던 우리로서는 커다란 보람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암자 터를 보러 왔을 때, 그날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맛을 보려고 우물에 갔더니 때마침 우물 위 묵은 벚꽃나무에서 허영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적막한 산중에 홀로 피어 있는 벚꽃을 보자, 뜰에 나무도 몇 그루 심어 줘야겠다고 생각이 미쳤다.

후박과 은행은 전에 살던 다래현 묘포장에서 이사 올 때 몇 그루씩 가져와 큰절에도 심어 주었는데 보살핌이 소홀해 시들어 버리고, 화엄전에서 한 그루씩 자라고 있다.

향나무는 산청에 있는 숙인이네 농장에서 차로 실어다 준 것이다. 세 그루였는데 두 나무는 태풍에 넘어진 그 빌미로 가고, 한 그루만 잘 자라고 있다. 태풍이 할퀴고 간 뒤 바로 세우긴 했지만, 받침대를 해주지

못했던 일이 지금도 그 나무들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오동은 그전부터 두 그루가 정정하게 자라 여름에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 준다. 무더운 날이면 그 그늘 아래 돛자리를 깔아 놓고 점심을 먹는다.

5월 한 달 보랏빛 오동꽃은 그 향기가 함께 칙칙해진 숲 언저리에 아주 귀물이었다.

여름밤 창문으로 내다보면 오동잎 사이로 달이 뜬다. 그리고 한밤중에 오동잎 지는 소리에 나는 깜짝깜짝 귀를 모을 때가 있다.

한때 꽃과 그늘의 혜택을 입은 대신 가을이면 여기저기 바람결에 뒥구는 그 잎사귀의 뒤치다꺼리도 해 줘야 한다.

수액이 빠져 버린 메마른 잎은 보기 흉한 잔해. 혼이 나가 버린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것은 살아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한번 숨이 나가 버리면 한낱 가벼운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옛 그림에 장승업의 <고사세동도 高士洗桐圖>가 있다. 한 은사隱士가 동자를 시켜 물수건으로 오동나무의 먼지를 닦아 내게 하는 그런 그림이다. 아마 벽오동의 초록빛 줄기를 즐기기 위해서였으리라.

요즘처럼 닳아 가는 세상에서는 보고 듣기 어려운 풍류요, 운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불일의 뜰에도 내가 와서 두 그루의 벽오동을 새로 심었다.

은행나무는 다섯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그중 두 그루는 몇 차례 옮겨 심는 바람에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

나무마다 특성이 달라 마른 땅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습기를 좋아하는 나무가 있다.

삼나무 편백들은 습한 땅을 좋아한다. 은행나무도 마른 땅에서 살기를 싫어한다. 수십 년이 지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을이면 누런 은행잎으로 암자 안이 온통 가려질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베지만 앓는다면 나무들은 하늘로 하늘로 팔을 뻗칠 것이다.

태산목은 진주 농업전문대의 교수가 두 그루 갖다주어 심었다. 한 그루는 그 여름 가뭄에 말려 버리고, 남은 한 그루는 동상으로 고생하더니 요즘에는 아주 건강해졌다.

태산목은 내 소년 시절, 2층에 있는 우리 반 교실 안에서 그 탄탄한 잎과 꽃을 바라보던 인상 깊은 나무다.

시간이 파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아래로 뛰어 내려가 앞을 다투어 가며 꽃잎을 줍던 그런 풋풋한 추억이 있는 나무다.

모란과 파초와 옥잠화는 큰절에서 옮겨다 심었다. 누가 모란에 향기가 없다고 했는가.

아마 선덕여왕의 처녀 시절이었지. 모란꽃에 별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은 향기가 없어서라고. 그걸 영특하다고 왕은 칭찬했고, 그 후손들인 우리는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덩달아 고개를 끄덕거렸겠다.

서라벌투로 하자면, 웃기지 마이소, 와 모란에 향기가 없다 카는 기요, 공주는 축농증 환자였는가 봅니다.

모란은 가까이서보다는 몇 걸음 떨어져 서면 그 향기가 은은히 들린다.

장미보다는 조금 어린 수줍은 향기. 그러나 모란은 향기보다도 그 흐드러진 넉넉한 꽃 모양이 값지다.

중국인들이 꽃 중의 왕이라고 했음 직하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산뜻한 그 낙화.

꽃은 필 때도 고와야겠지만 질 때도 고와야 한다는 교훈을, 봄철마다 우리들 인생사에 비추어 되새기게 한다.

성긴 빗방울

파초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조지훈의 시 <파초우芭蕉雨>의 일절이다.

여름날 파초앞에 후두기는 빗소리를 들어 본 사람이면 이 시의 진실성을 알아들을 것이다.

치자나무는 추위에 약하다. 지난겨울에는 경험자 말대로 자주 물을 주었더니 털 얼었다.

올해는 꽃망울이 많이 맺혔다. 치자꽃이 피면 방 안에 들어가기 싫어진다.

요즘 매실이 주렁주렁 열린 매화나무는 산 너머 신흥마을에 사는 용채라는 청년이 몸소 지게로 저다가 심어 주었다.

자기 아버지가 우리 불일암을 지은 대목인데, 아버지가 지은 암자 뜰에 자기는 기념으로 나무를 심겠다는 뜻에서였다.

술을 좋아하더니 몇 해 전 김 대목은 늙지도 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다. 초봄 매화꽃이 필 때마다 그 부

자가 생각한다.

석류는 열매보다도 초여름에 피어나는 그 꽃 빛깔이 좋아 곁에 두고 싶었는데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전 목욕 식발 날 큰절에 내려갔다가, 설법전과 문수전 뜰에 핀 석류꽃을 한참 바라보고 올라왔다.

대숲과 감나무 전나무 삼나무 편백, 그리고 차나무들은 예전에 살던 스님들이 가꾸어 놓아 그 은혜를 오늘 의 내가 입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자연에 대해서만은 너무 깜깜하다. 텔런트나 운동선수의 신상에 대해서라면 자기 집안 족보보다도 훨씬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 나무 이름 하나, 새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만큼 자연과 멀다는 소식이다. 자연과 멀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그만큼 부자연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람 소리와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도 맡아 보고 시냇물 소리에 귀를 모을 수도 있어야 한다. 흘러가는 구름에 마음을 실어 보내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이나 달빛에 흐려진 눈을 씻기도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이 없는 박제된 현대의 도시 문명, 그 오염을 씻어 내려면 자연의 손길 밖에 없다.

아까부터 벚꽃나무 가지 끝에서 밀화부리가 그 고운 목청으로 6월을 노래하고 있다. 나도 몇 차례 휘파람으로 화답을 해주었다.

1982

##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주세요

### 최초의 설법

불타 석가모니가 성도 후 최초로 어떤 설법을 했느냐 하는 것은 불교의 성격을 말하는 데에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녹야원에서 다섯 사람의 수행자(이들은 뒤에 5비구가 된 최초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행자들이여,  
진리를 구현하려는 출가 수행자들은,  
양극단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온갖 욕망에 탐착하는 것,  
그것은 저열하고 비천한 범부의 소행이다.  
현명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고행을 하는 것.  
그것은 다만 스스로를 괴롭힐 뿐 현명한 사람의 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도리에 맞지도 않는다.  
나는 이 두 개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것은 눈을 열고 지혜를 일으키고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전법륜경轉法輪經》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자신이 그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왕국이지만 왕자로 있을 때는 세속적인 쾌락의 다 누렸고, 출가해서는 남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독한 고행을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양극단을 버린 가장 올바른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를 너무 극성떨지 않고, 어중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중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팔정도八正道, 여덟 가지 바른 길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정신을 일상에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편벽되고 치우치지 않은 가장 올바른 길인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복잡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루 한때라도 조용히 그 어떤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순수하게 발가벗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정신을,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일이 새로워집니다. 이와 같이 되살피는 일이 없으면 절이 아니라, 절보다 더한 곳을 다녀도 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뜻은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반성하자는 뜻입니다. 절에만 나온다고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소견들이 비좁고 콧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삶이 거듭거듭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 그 자체도 끊임 없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급한 이론을 배우고 있다 할지라도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도는 우리들의 눈을 열고, 지혜를 일으

키고,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출가 전 세속적인 쾌락의 생활과 출가 후 극단적인 고행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法句經]’ 제40송에는 이런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여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꾸준히 정진하라.

평범한 교훈 같지만 아주 뜻이 깊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번뇌,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걸 지혜의 날쌌 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꾸준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즉, 성불의 길입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는 지혜의 도이면서 또한 개인의 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후기 대승 불교에 의해 대중의 도로 확산됩니다.

초기 불교를 보면 출가주의적 경향이 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출가 대중을 상대로 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기 대승 불교에 오면 출가주의적인 색채는 희미해집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인가를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 무소의 뿔 1

35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허물며 친구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6 서로 사귀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7 친구를 동정한 나머지 마음이 거기 얽매이게 되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가까이 사귀면 이런 우려가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8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9 숲속에서 묶여 있지 않는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 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0 동반자(同伴者)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 데에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1 동반자들 속에 끼면 유희와 환락이 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아주 지극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2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3 출가(出家)한 처지에 아직도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집에서 사는 재가자(在家者)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다. 남의 자녀에게 집념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4 잎이 진 코빌나무처럼, 재가자의 표적을 없애 버리고 집안의 굴레를 벗어나 용기 있는 이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코빌나무는 흑단의 일종, 재가자의 표적은 머리, 수염, 흰옷, 장식품, 향료 및 처자와 하인이 있는 것.

45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절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46 그러나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절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 공덕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여덟째,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덕 베풀 것을 현 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공덕이란 공적과 덕행이지요.

한마디로 선행이에요.

선행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는 말은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보를 바라는 것은 장삿속이에요.

신앙생활은 공리성功利性을 배제해야 합니다.

요즘 수능 시험 때문에 다급해진 엄마들이 많지요?

기도할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격이 됐건 불합격이 됐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든 그렇지 않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어떤 결과를 갖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메아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우주의 질서예요.

## 5. 법정 스님 흔적



### 선선한 부채질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 오면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단오 부채[단오선, 端午扇]를 선물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부채에 '빛과 향기와 맛을 온전히 할 지로다'라고 붓장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그리신 찻잔과 주전자!  
차 맛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음미할 수 있습니다.  
선선한 부채질은 한가로운 마음일 테지요.



##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 자행동녀를 보다

그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에게 가장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광대 청정한 이해를 내어, 항상 대승大乘을 생각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 부처님 법기를 원했다. 법의 경계를 관찰하되 걸림이 없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 법의 실제實際와 상주제常住際와 삼세三世의 찰나제刹那際와 허공과 같은 사이(際)와 들이 없는 사이, 법의 분별이 없는 사이, 이치의 걸림이 없는 사이, 겁의 무너지지 않는 사이, 여래의 사이 없는 사이(無際之際)를 분명히 알았다.

또 부처님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온갖 생각의 그물을 깨뜨려 집착이 없고, 부처님들의 대중이 모이는 도량도 취하지 않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도 취하지 않고, 중생에게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모든 소리는 다 메아리와 같음을 알고, 모든 빛은 다 그림자와 같음을 알았다.

선재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사자분신성師子奮迅城에 이르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행동녀를 찾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동녀는 사자당왕師子幢王의 딸인데 5백 동녀를 시종으로 거느린 채 비로자나장藏 궁전에 살면서 미묘한 법을 설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선재동자가 왕궁을 찾아가 자행동녀를 만나려 할 때, 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모두들 자행동녀에게 법을 들으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선재가 '이 왕궁의 문에는 통제가 없으니 나도 이대로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 비로자나장 궁전을 보았다. 궁전 안의 자행동녀는 살갓이 금빛이고 눈은 자줏빛을 띠었으며 머리카락은 검푸른데, 범천의 음성으로 법을 설하고 있었다. 선재는 앞으로 나아가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니 말씀해 주소서.”

자행동녀는 선재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 궁전의 장엄을 보라.”

선재는 절을 하고 나서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다. 벽과 기둥과 거울과 마니보배와 장엄거리와 황금 풍경마다운 법계의 여래께서 처음 발심해 보살행을 닦고 큰 서원을 가득 채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던 일과, 미묘한 법을 설하시다가 열반에 드시던 일 등이 영상처럼 나타났다. 마치 맑은 물속에 해와 달과 별 등 온갖 형상이 비치듯 했으니, 이런 현상은 모두가 자행동녀가 과거세에 심은 선근의 힘에 의한 것이다.

선재동자는 방금 궁전의 장엄에서 본 부처님들의 여러 모습을 생각하면서 합장하고 자행동녀를 우러러보았다. 이때 자행동녀가 선재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이것은 반야바라밀의 두루 장엄하는 문(普莊嚴門)이니, 나는 항하사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을 얻었다. 저 여래들께서는 각각 다른 문으로써 나를 이 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게 했으며, 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선재가 물었다.

“성자시여,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의 경계

는 어떠합니까?”

동녀가 대답했다.

“선남자여,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 따라 나아가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때 보문普門 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지 다라니문이 모두 내 앞에 나타났다. 이른바 불세계 다라니문, 불 다라니문, 법 다라니문, 중생 다라니문, 과거 다라니문, 미래 다라니문, 현재 다라니문, 상주제常住際 다라니문, 복덕 다라니문 등 셀 수 없이 많은 다라니문이 앞에 나타났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해탈문을 알 뿐, 저 보살 마하살은 마음이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고, 법계에 들어가 복덕을 가득 채우며, 출세간법에 머물러 세간의 행을 멀리한다. 또 지혜의 눈이 걸림 없어 법계를 두루 관찰하며, 지혜의 마음이 광대해 허공과 같으며, 모든 경계를 다 밝게 보며, 걸림 없는 지위의 큰 광명장을 얻어 온갖 법과 뜻을 잘 분별한다. 세상의 법을 행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되 세상에 해를 끼침이 없고, 모든 세상의 의지가 되어 중생의 마음을 두루 알고, 그들 각자에게 알맞게 법을 설하고, 어느 때나 항상 자유자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삼안三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선견善見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 작은 기도

기쁠 때는  
너무 들뜨지 않게  
도와주시고  
슬픈 때는  
너무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말을 할 땐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말을 들을 땐  
아무리 재미없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미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날이 그날 같은  
단조로운 일상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실과 겸손의 실습을  
오늘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202206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불기2566년 '부처님 오신 날'도 맑고 향기롭게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8일(음력 4월 8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길상사에서 관불 의식과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했습니다.

오전 9시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과 사중 스님, 각 신행단체장, 길상사 신도를 비롯하여 외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동참하여,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관불 의식을 시작으로 불기 2566년 봉축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명종 타종, 삼귀의, 헌다 의식, 헌화 의식, 합창단의 음성 공양(경사로드), 봉축 발원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인사 말씀, 공지 사항, 사홍 서원 순서로 봉행되었고, 길상사를 찾으신 많은 불자님들께 떡과 음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경내에서 미니 장터 및 활동 안내, 회원 가입을 위한 홍보 부스에 대학 장학생이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법정 스님 진영각을 찾는 방문객들이 손조롭게 참배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길상사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아담법석 버스킹'을 주관하여 봉축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버스킹'에는 본회 대학 장학생인 박채림 학생과 친구(동덕여대 실용음악과)로 이루어진 '늘봄', 길상사 신도시 낭송가 임현정, 프로젝트 그룹 '있다'가 참여해 다양한 노래와 마임, 연주, 합창 등을 공연해 길상사를 찾은 여러 불자님과 시민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자비의 연등'에 동참해 주신 후원금은 전액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특별 후원 물품(감자탕, 황도, 골뱅이, 백설기 등)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회원님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과 희망이 아름답게 꽃피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봉사자가 모여서 활동하기 어려워 반조리 식품을 지원해 왔는데, 6월부터 조리 활동을 서서히 재개하려 합니다. 일단 목요일에만 진행하면서 봉사자 인원이 늘어나면 본래대로 진행하는 방안

을 고려하고 있으니, 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 자원 활동

서울 중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발식당 급식 봉사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5월부터는 기초 수급 어르신 300명 정도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는 매일 2천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급식 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정 스님 법문 기록 <<꽃한테 들어라>> 출간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정 스님의 1994~2009년 16년 동안의 육성 법문을 가려 엮은 법문 모음집 <<꽃한테 들어라>>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꽃한테 들어라>>는 법정 스님 12주기 추모 법회 즈음에 공개된 육성 법문 데이터 36편을 복원·복구해 정리한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 중 녹취 및 문어 정리가 마무리된 <꽃한테 들어라> <어디서 따로 찾는가?> <무엇을 보는가?> <오늘부터 산다> <나서서 베풀어라> 등 13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저서 내용은 법정 스님이 생전에 늘 그랬듯 세상 모든 존재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꽃이 피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상상하며 돈타령하느라, 세상일에 휘말려 꽃이 핀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스로답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특정한 곳이 아닌 내 주변 어디에나 피는 꽃을 살피라는 따뜻한 조언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그동안 맡아 보관하던 법문 기록을 공개한다"는 기획 의도를 밝히며 "스님은 가셨지만 시공을 초월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법문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고요할 날 없이 고난과 분노가 뒤섞인 날들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복을 향한 깨달음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 그리고 길상사 신도 더 나아가 우리 불자들에게 법정 스님의 법문 한마디의 가르침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 기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지식음료는지식 출판)

#### 덕조 스님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출간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침을 여는 덕조 스님의 향기 소리'에 날마다 쓴 글과 불일암 주변의 사계절 모습, 티베트 등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을 가려 뽑은 에세이집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새 아침을 열었던 그 글귀 가운데 엄선한 330여 편의 마음 말하는 아포리즘과 눈 밝히는 40여 장의 컬러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이해인 수녀님이 "스님이 초대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뜰에서는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행복한 경험을 하는 일상의 여행자, 기도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요즘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살며 명상보다는 망상을 더 많이 하는 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 본 스님의 새 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는 추천의 글을 써 주었습니다. (김영사 출판)

####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6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금)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 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 ~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 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 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 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 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 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 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 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 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 문 의 후 참여해 주세요.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6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 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성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 제한된 인원만큼 분산 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입재 5월 15일(일) / 초재 7월 1일(금) / 2재 7월 8일(금)

3재 7월 15일(금) / 4재 7월 22일(금) / 5재 7월 29일(금)

6재 8월 5일(금) / 막재 8월 12일(금)

● 영가 지못 접수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에 마련된 함 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 영가 지못은 막재 때 소전해 드립니다.

● 백중 가사불사 모연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옷이자 승보에게 울 리는 가장 소중한 공양인 가사불사에 동참하시어 속세의 업장을 소멸 하고, 지혜를 증득하여 모두 부처님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동참금 : 자율 보시(5만 원 이상 동참자 축원)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40-003-875653 / 길상사

●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6월 4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6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1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6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